

***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과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작품의 사례를 통한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mative Features of Painting and Furniture Design in Postmodernism

- Focused on the correlation with their examples in the 1980s -

최병훈* / Choi, Byung-Hoon

김진우** / Kim, Jinwoo

Abstract

Postmodernism, the theory and philosophy that swayed the world in the late 20th century,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s a critical reaction against modernism as well as, in one way, the logical extension of modernism itself. Thus,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and temporal background of the birth of postmodernism and a macroscopic and correlative approach toward the related artistic circles, especially art, were carried out before a formative discussion on the furniture design of postmodernism.

Postmodernism in the field of furniture design shares the history of birth and spirit with Memphis, the progressive design group established by Ettore Sottsass in Milan, 1980. This study identifies the formative features of postmodernistic furniture design around those works that express the trend of postmodernism, in particular, chairs, as well as the designer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Memphis exhibition at the Milan Furniture Fair. By identifying such features, the correlation between postmodernism and those features expressed in the works of postmodernism paintings were examined. The works of Anselm Kiefer, a German neo-expressionist who became famous through the Venice Biennale 1980, and five young Italian trans-avant garde authors were selected as the scope of this cas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in modern art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mes, shape, and content and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ly, borrowed and past-oriented themes, secondly, deconstructive, atypical, plural, emotional, and intuitional shapes, and thirdly, basic, metaphorical, and abstract conten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hair design in postmodernism furniture design are as follows; Firstly, deconstructive, symbolic, and abstract shapes, past-oriented, reactionary, and primitive colors and closing,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 of delivering commercial and metaphorical messages. The subjects and motives of art have been succeed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and closing in furniture, the shape and techniques of fine arts by the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shape, and the content of art by that of furniture. They share key words and characteristics.

키워드 :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 가구디자인, 의자디자인, 뎀피스

Keywords : Postmodernism, Postmodern painting, Furniture design, Chair design, Memphis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반을 지배하였던 이론과 사상이 모더니즘이었다면 그 후반을 지배하였던 개념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와 해석은 이를 바라보는 사상가와 철학가들에 의해 다분히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예술계의 동향을 단순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 미술사에서 나타났던 큐비즘, 추상표현주의 등과 같이 작품의 특성이 비교적 단일한 사상체계 하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 정희원,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 정희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라 전혀 다른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신축성 있는 개념인 것이다. 오늘날 국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우선 주로 미국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다원성과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일견 모더니즘의 논리적인 연장인 동시에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인 것이다.

시대를 앞서갔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디자인개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동시대 혹은 선대에 활동하던 예술가와의 직간접적이며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 영감을 얻고 성장해 나갔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 대한 조형적 논의의 하기에 앞서 포스트모더니즘 발생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예술분야 특히 회화 분야에 대한 거시적이며 상호연관적인 접근을 선행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던 회화와 가구디자인분야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하여서는 선행문헌 등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어져 왔으나 이들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 논문의 학술적 의의가 있으리라고 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연구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발전에 대하여 연구한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미시적으로는 독일의 신표현주의(Neo Expressionism)와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t-Garde)의 작가와 작품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에 나타난 특징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도출하였다. 가구디자인 분야에서는 멤피스의 첫 전시회에 함께 참여하였던 디자이너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특히 의자디자인의 사례를 선정하여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현대미술과 의자디자인의 사례와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그 연관성을 찾아 결론을 도출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상 사례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80년대로 제한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론되기 시작하여 이후 약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발전 및 변화하여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1980년대는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영역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에도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작가 및 사례 선정의 범위로는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Venice Biennale)와 1981년 멤피스(Memphis) 디자인전에 발표되었던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회화에 있어서는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젊은 작가전에 참여하였던 5인의 이탈리아 예술가와 독일 파빌리온(German Pavilion)을 위한 전시에 초대되었던 독일 표현주의 작가인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등 6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가구에 있어서는 1980년 멤피스 성립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듬해 밀라노 가구박람회(Milan Furniture Fair)를 통해 첫 번째 멤피스전에 함께 참여하였던 작가들의 작품과 동시대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총 10인의 작가를 선정하여 그들이 디자인한 가구 중 특히 의자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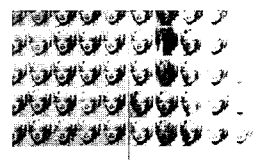
2.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사례와 표현특성

1968년 초 레오 스타인버그(Leo Steinberg)²⁾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에 발표된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회화작품에서 표현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경향에 대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로인해 스타인버그의 추종자들은 모더니즘의 종말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발점을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찾는다.³⁾ 침대(Bed)<그림 1>는 라우센버그가 처음으로 제작한 콤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그림 1> 라우센버그의 침대, 1965

g)⁴⁾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작품의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실제 작가의 침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이후 벽에



<그림 2> 워홀의 마를린 먼로 이면화, 1962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워홀은 마를

1)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의 경우에는 그가 포스트모던 담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지만, 리디자인(re-design)을 주로 하였던 그의 의자디자인 작품이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으므로 본 논문의 사례에서는 제외되었다.

2)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미국의 미술역사학자. 1960년 "17th-century Italian architect Francesco Borromini and the church of San Carlo alle Quattro Fontane in Rome"으로 미국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저서 및 강연은 근작인 "Leonardo's Incessant Last Supper"를 비롯하여 다수에 이르며 연구의 범위는 르네상스, 바로크는 물론 20세기의 예술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3)브랜튼 테일러,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시각과 언어, 1996, p.56

4)칠하거나 그리거나 설계하거나 조각하는 방법 대신 예술적 재료가 아닌 자연적 재료나 대량생산된 재료를 모으는 방법으로 만드는 기법

린 먼로 이면화(Marilyn Monroe diptych)<그림 2>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에게 친근한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를 비개성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재해석해 내면서 예술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2.1. 제 39회 베니스 비엔날레

변화와 성장을 반복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3년 4월 19일 첫 전시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80년에 개최되었던 제 39회 비엔날레에서는 독일의 신표현주의와 이탈리아의 트랜스 아방가르드가 성공적으로 전시되었던 중요한 행사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독일의 신표현주의는 거칠다고 할 정도의 격렬한 필치, 강렬한 색채, 날카롭게 각이 지고 과감하게 왜곡된 조형적 표출 등의 표현기법을 통해 모더니즘에서 배재해 버린 추상표현주의적 요소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이미 호응을 잃어가고 있던 미니멀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사조로서 급부상 하게 된다. 이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신화, 중세 연금술, 나치 정권, 고대 유대교의 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속의 과거를 빌어 인간의 삶, 종교, 문명 등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들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1970년대의 개념미술이나 진보주의적인 정치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아방가르드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기본적으로 신표현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미술평론가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Achille Bonito Oliva)가 기획한 5명의 젊은 작가전은 트랜스아방가르드 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시에 참여하였던 작가로는 산드로 치아(Sandro Chia, 1946-),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 1952-), 엔조 쿠치(Enzo Cucchi, 1949-), 니콜라 드 마리아(Nicola De Maria, 1954-), 밌모 팔라디노(Mimmo Paladino, 1948-) 등 이었다.

2.2. 1980년대 회화 작가와 작품사례

독일 대표 작가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키퍼는 독일의 전통과 신화적 인물, 역사를 의식적으로 탐구하였다. 독일의 억압된 역사로 인해 비롯된 상실감과 불안전함을 주제로 삼았고 고통, 희생, 파괴에 대한 감정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중세 연금술과 카발라를



<그림 3> 키퍼의 Ways of worldly Wisdom, 1980

5) 스테파노 추피, 천년의 그림여행, 예경, p.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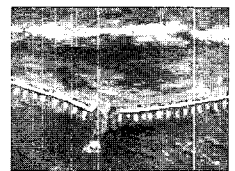
접하게 되면서 철학적이며 난해한 그의 작품에 깊이를 더해갔다<그림 3>. 키퍼처럼 과거의 역사, 신화 전설속의 내용을 차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하고자 하는 과거 지향적 경향은 산드라 치아와 엔조 쿠치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산드라 치아는 트랜스 아방가르드 그룹의 다른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로서 이는 1981년 <무제(untitled)>라는 제목 하에 발표된 두 개의 회화작품<그림 4>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신화적, 미술사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추상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던 특성 때문이다.



<그림 4> 좌우 모두 치아의 Untitled, 1981

엔조 쿠치는 주로 풍경을 소재로 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근원적인 토양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적인 설화와 관련시켰다. 고향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무의식속에서 상상한 것을 회화에 옮김으로써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출해내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바다, 항구, 선박 등이나 언덕위의 마을, 묘지, 십자가, 해골 등이 등장하며 장엄하면서도 묵시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5>.



<그림 5> 쿠치의 The houses are going downhill, 1983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었다. 콜라주(collage), 모자이크(mosaic), 납화법(蠟畫法), 프레스코(fresco) 등 다양한 기법과 유리, 사진, 지푸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사용은 이들 회화의 해체적, 비정형적 특성과 연관된다. 화가이자 시인인 프란체스코 클레멘테는 이러한 표현기법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고 자신의 모습을 환각적인 캐릭터로 묘사하여 자신의 삶과 작업에서 느껴지는 모순된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해체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또한 동양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그가 태어나 청년기를 보낸 나폴리(Naples)와 다년간 체류했던 인도의 마드라스(Madras), 인도의 문학과 탄트라(Tantra) 철학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밌모 팔라디노는 이탈리아의 미술역사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종교적인 회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모자이크와 납화법 등 기독교적 전통과 기법을 사용하였다. 고풍스럽고 구태의연한 의식과 미술사적인 요소를 인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가져온 불가사의하고 이국적인 사인(sign)과 환상적인 형상을 반복적으로 접목시키는 등 상호연관



<그림 6> 팔라디노의 Untitled, 1982

성을 찾기 어려운 요소를 병치시켜 전형적인 포스트모던 회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니콜라 드 마리아의 작품 속에는 동화 속 어딘가에 와 있는 듯 한 환상적이며 미학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그가 사용하는 색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색채 사용은 다분히 정신적이며 일상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관람자를 유도한다. 전시장의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의 회화 및 설치작품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1980년 이후, 극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작품제작에 몰입하기도 한다. 거대한 공간은 현실이 아닌 듯 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며, 작은 그림들은 섬세한 작업과정을 강조하여 보여주며 대비를 이룬다.



<그림 7> 마리아의 Regno dei Fiori, 1983/85

2.3. 사례분석 및 표현특성

6명의 작가의 1980년대 작품을 크게 작품의 주제, 형상, 내용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사례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그에 관한 세부내용과 해당사례를 우측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표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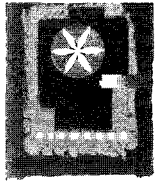
분석의 관점	주제(모티프)	형상(기법)	내용(message)
특성	차용적, 과거지향적	해체적, 비정형적, 다원적, 감성적, 직관적	원초적, 은유적, 추상적
세부내용	신화, 전설, 역사, 과거의 내용	다양한 재료사용(캔버스, 유화, 사진, 재, 지푸라기 등) 다양한 기법사용(콜라주, 모자이크, 납화법, 프레스코 등)	소우주적인 사고, 이국적(동양적) 이미지 사용, 종교적, 철학적
대표적인 사례	키퍼의 Ways of worldly Wisdom, 1980 팔라디노의 Ellpodbomool, 1984 치아의 Untitled-1981 쿠치의 The houses are going downhill, 1983 팔라디노의 Sull'orlo della sera, 1982-83	클레멘테의 In the mouth, 1983/1984 팔라디노의 Untitled, 1982 치아의 Untitled-1989 치아의 painting, sculpture and dust, 1981 치아의 Princess of China, 1989	쿠치의 Montagne miracolate, 1981 쿠치의 Untitled-1989 치아의 Il figlio della sera, 1980 마리아의 Regno dei Fiori-1985

3. 가구디자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사례

회화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활성화 되었듯이 동시대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밀라노 가구박람회와 멤피스 디자인전은 디자인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렸다. 디자인분야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장식에 대한 욕구와 인간성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더니즘이 추구하였던 좋은 디자인, 기능적인 디자인에 반발하였던 건축에서의 경향과 결합되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에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로는 민족적, 지역적 전통 및 인간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자기들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역사성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짧은 건축역사에서 오는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충적 양식, 지역성, 상업주의, 대중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밀라노 가구박람회와 멤피스전

1964년 에또레 소트싸스는 그의 회화작품 <그림 8>을 통해 인디아의 문화를 상징하는 추상표현주의적 요소를 표출하였고 이는 그가 추후 멤피스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형의 근원을 시사하고 있다. 1981년 밀라노 가구박람회에 다소 천박하고 대담한 조형의 작품들을 가지고 처음 참여하였던 멤피스 그룹은 인간에 대한 고찰과 커뮤니케이션, 아름다움에 대한 재고 등 좀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20세기를 지배해 오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던 진보적인 디자인 운동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디자인에 더 많은 색채와 소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형태가 주는 경쾌함과 유머를 추구하였다.



<그림 8> 에또레 소트싸스의 회화작품, 1964

멤피스 디자인을 통해 표출된 새롭고 거친 조형언어들은 당시의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으며 그 한계성을 지적받았으나, 사실 멤피스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예측하며 시도하였던 단기적인 조형 운동이었다. 멤피스의 상업적인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디자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중심에 이탈리아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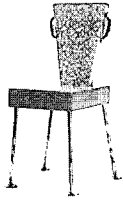
당시 멤피스의 첫 번째 전시회에는 미켈레 데 루치(Michele De Lucchi), 한스 홀라인(Hans Hollein), 시로 구라마타(Shiro Kuramata),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등 이탈리아를 넘어 다양한 국적의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함께하였으며

이들은 모더니즘의 가르침에 대하여 도전함으로써 현대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⁶⁾

3.2.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의자디자인의 사례

(1) 세지올리나(Seggiolina by Ettore Sottsass,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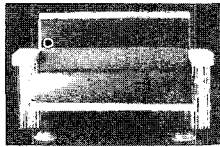
1981년 10월 에또레 소트싸스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의 멤피스전을 통해 그가 추구하던 기하학적 구조, 장식의 효과, 아프리카 상징물이나 만화책을 뒤섞은 듯한 화려한 색채의 표현 등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소트싸스는 가구에 있어서 장식성과 구조는 결국 인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message)을 반영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세지올리나 다이닝 체어(dining chair)<그림 9>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러니한 감정을 키치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등받이, 좌판, 다리는 시각적으로도 극명하게 분리되어 해체적인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소트싸스의 세지올리나, 1980

(2) 리도(Lido by Michele De Lucchi, 1980)

1980년대부터 뉴 디자인(New Design)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건축가이자 이론가, 산업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미켈레 데 루치는 급변하는 시대정신을 포착하고 다양한 성격의 포스트모던 양식을 수용하고자 하였고 멤피스 그룹에 합류하였다. 목재 프레임에 강렬하고 현란한 색채의 패브릭으로 마감한 소파인 리도<그림 10>는 감각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의 의도와 함께 익숙하던 미학적 기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0> 미켈레 데 루치의 리도, 1980

(3) 미찌, 마릴린(Mitzi sofa, Marilyn sofa by Hans Hollein, 1981)

건축가 홀라인은 1964년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반감과 미래의 건축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거대한 스파크플러스와 전원 풍경을 병치하여 폴라주기법으로 담아 낸 적이 있다<그림 11>. 1960년대 홀라인과 그의 동료들이 건물, 도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제시한 건축 설계안은 1960년대 말 아키즘(Archizoom Assciati)과 슈퍼 스튜디오(Super studio)의 급진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선언을 예언하는 것이었으며 추후 멤피스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림 11> 홀라인의 구층건물: 스파크플러스 프로젝트, 1964

미찌 소파(Mitzi sofa)와 마릴린 소파(Marilyn sofa)<그림 12>는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의 조형을 표현하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찌의 경우에는 상하좌우대칭의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고 마릴린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여신의 이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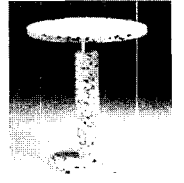
와 팝 적이며 상업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몸체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그림 12> 홀라인의 미찌 소파(좌)와 마릴린 소파(우),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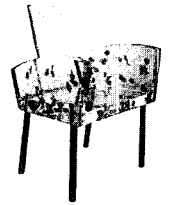
(4) 미스 블랑슈(Miss Blanche by Shiro Kuramata, 1986)

시로 구라마타가 남긴 대다수의 작품을 포스트모던하다고 정의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미니멀적인 요소가 흐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일본의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녹여내려고 하였던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멤피스전을 통해 보여준 교토 테이블(Kyoto table)<그림 13>을 비롯한 몇몇의 사례를 보면 당시 멤피스가 추구하던 포스트모던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라마타는 재료와 형태를 활용한 표현의 대비를 통해 일본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즉, 소재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일본의 것이나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대신 형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구라마타의 교토 테이블, 1983

1988년 발표되어 현재까지 양산이 되고 있는 미스 블랑슈(Miss Blanche)<그림 14>의 경우에는 재질의 속성을 이용하여 다분히 시(詩)적인 의자를 완성하였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을 초근대적인 소재인 아크릴 재질과 그 속을 부유하고 있는 인조장미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 구라마타의 스펀 블랑슈, 1986

(5) MG1(MG1 by Michael Graves, 1984)

미국에서의 포스트모던 건축을 이끌었던 선두적인 인물인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가구디자인 작품에는 건축적 경향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이 흐르고 있다. 건축역사 속에서 도출해 낸 고전적인 모티브와 큐비즘의 조형언어로부터 받은 영향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형태와 색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1981년 멤피스전을 계기로 하여 유럽시장에서 진보적인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세우게 된다. 그레이브스가 디자인한 MG 시리즈 중 MG1<그림 15>에서는 고전적 건축 조형에서 받은 영감과 기하학적 특성이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5> 그레이브스의 MG1

(6) 달리라(Dalila chair by Gaetano Pesce, 1980)

극적인 공간을 설정한 가운데 인간적 요소와 해체적인 오브제를 다소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 페세는 인간과 역사가 규정해 놓은 어떠한 미학적 기준이나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그의 본능을 표출하고 있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페세는 예술, 디자인, 건축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영역의 경계선과 그 한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꺼번에 통합

6) Penny Sparke, A Century of Design, Mitchell Beazley, 1998, p.219

해 버리기도 하였다. 페세의 작품 속에는 그가 평생을 통해 추구하였던 속박을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세계와 인간과 인체에 대한 모색의



<그림 16> 페세의 달리라 체어(좌)와 산소네 테이블(우), 1980

결과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돌출시키면서 기능주의를 초월하여 사물을 또 다른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산소네 테이블(Sansone table)을 위하여 디자인하였던 달리라 의자<그림 16>의 경우 의자조형의 원시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특징과 상징적인 암시를 통하여 부드러운 여체의 특징을 극대화하였다.

(7) 애니말리 도메스티시(Animali Domestici by Andrea Branzi, 1985)

브란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중의 한 사람으로써 인간이 살게 될 미래의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연구를 작품으로 실현하고 있다. 현대에서의 문화란 마치 대중음악과도 같아서 쉽게 퍼졌다가 쉽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미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정 안에서의 삶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가 알키움 그룹(Archizom Associati)과 함께 발표하였던 초기 작품을 보면 실내 공간속에 다시 또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유평파적인 실내디자인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브란찌의 애니말리 도메스티시,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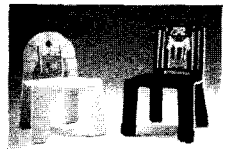
1985년에 디자인한 애니말리 도메스티시(Animali Domestici)<그림 17>의 사례는 그가 해석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사적인 공간이 요구하게 될 미래지향적인 가구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가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애완동물과 같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가구인 것이다.

의자를 이루고 있는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동일 소재 내에서 혼성된 마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등받이 부분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소재의 상태로 사용하는 반면 좌판의 아래 부분은 정제된 목재에 유광페인트로 마감하여 마치 양산되는 의자의 일부분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거친 목재의 질감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정제된 목재의 질감을 통해서 산업화에 따른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등 다소 상반된 요소를 교묘히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8) 아르 데코, 셰라톤(Art Deco, Sheraton by Robert Venturi, 1984)

과거의 건축양식을 집합시켜 의자의 형태와 장식을 표현한 벤츄리의 아르데코와 셰라톤 의자<그림 18>에서는 표면의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패턴을 통해 2차원적인 조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의자는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의 양산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인 반면, 과거 건축양식의 일부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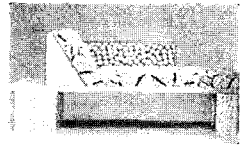
용한 형태와 유행이 지난 패브릭으로 표면을 마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적인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현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8> 벤츄리의 아르 데코와 셰라톤, 1984

(9) 로얄(Royale chaise longue, Nathalie du Pasquier, 1983)

아프리카와 인도에 머물면서 접하였던 다양한 요소(벽화, 정글, 원주민)와 그들의 이미지로부터 받은 영감을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와 시각예술로 표현해 내었던 빠스퀴에는 1978년 이후 이탈리아에 머물게 되면서 멘피스전에



<그림 19> 로얄 셰이즈로그, 1983

함께 하게 되었고 멘피스 디자인에서 발표된 가구 대부분의 패브릭 패턴을 비롯하여 가구, 꽃병, 카펫 등을 디자인하게 된다. 로얄 셰이즈 로그<그림 19>는 재료의 사용 및 의자의 기본적인 구조를 통해 멘피스 디자인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즉, 저렴하고 천박하다고 생각되는 소재인 플라스틱 라미네이트(plastic laminate)를 사용하였으나 다양한 색채와 패턴의 울 패브릭(wool fabric)마감으로 인해 고급 소재를 사용한 듯한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10) 밤비 체어(Bambi chair, Borek Šípek, 1983)

체코 출신의 디자이너 보렉 시펙의 밤비 체어<그림 20>에서 두드러지는 원시적인 상징성은 작가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던 것이었다. 신화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거칠고 매력적인 조형과 색상의 차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는 유리공예를 통해 습득한 수공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구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가구의 1차적인 기능과 활용보다는 인간의 감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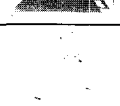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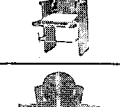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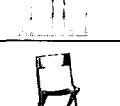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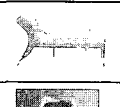




<그림 20> 밤비 체어, 1983
대칭 비대칭의 조합

3.3. 사례분석 및 표현특성

10명의 작가의 사례를 형태, 색채 및 마감, 내용(message)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형태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물의 형태, 기하학적 형태, 비정형적 형태, 대칭·비대칭의 조합 등이 나타났으며, 색채 및 마감에서는 과거 양식의 모티브 차용, 비정형적·불규칙한 패턴사용, 화려하고 거침없는 색채 사용 등이 나타났고, 내용적 관점에서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이슈의 표출, 작가·국가적 정체성, 상업적 메시지 등이 각각의 표현특성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의자디자인의 사례 및 분석




디자이너명	의지명 (제조사, 제작연도)	작품사진	분 석									
			형태	색채· 마감		내용(message)						
			자조배치형면	기하학적형태	다양한 재료의 조합	과거 양식의 모티브 차용	비정형적 형태 표현	회전하고 가동성 있는 구조	시공성의 고려	사회적 이슈의 표출	작가 국가적 정체성	사회적 메시지
1. Ettore Sottsass	Seggiolina (Studio Alchimia, 1980)			○			○		○			
	Beidermeier Sofa (Memphis, 1982)				○			○			○	
	Teodora (Vitra, 1987)					○						○
	Carabo (Zanott, 1989)			○			○					○
2. Michele De Lucchi	Lido (Memphis, 1982)			○				○			○	
	First (Memphis, 1983)			○					○			
3. Hans Hollein	Mitzi (Poltrova, 1981)					○						○
	Marilyn (Poltrova, 1981)		○				○					○
4. Shiro Kuramata	Sedia Seduta (Ishimaru Co., Ltd, 1984)			○								
	begin the beguine Terada (Tekkojo, Ltd, 1985)			○								
	How high the moon (Terada Tekkojo, Ltd for Vitra, 1985)			○								○
	Miss Blanche (Kurosaki, Vitra, 1986)					○		○				
5. Michael Graves	MG1 (1984)			○			○				○	
	MG2 (1984)			○			○				○	
	MG4 (1984)			○			○				○	
	Dailia chair (Cassina, 1980)		○	○		○				○		







디자이너명	의지명 (제조사, 제작연도)	작품사진	자조배치형면	기하학적형태	다양한 재료의 조합	과거 양식의 모티브 차용	비정형적 형태 표현	회전하고 가동성 있는 구조	시공성의 고려	사회적 이슈의 표출	작가 국가적 정체성	사회적 메시지
6. Gaetano Pesce	Tramonto NY (Cassina, 1980)					○						○
	Pratt Choir (Gaetano Pesce, 1983)			○								○
	Greene street chair (Gaetano Pesce, Vitra, 1984)			○								○
	I Feltri (Cassina, 1987)				○						○	
	Cannaregio (Cassina, 1987)				○						○	
7. Andrea Branzi	Animal Domesotti (Zabro, 1986)			○						○		○
8. Robert Venturi	Art Deco (Knoll International, 1984)			○							○	
	Chippendale (Knoll International, 1984)			○							○	
	Queen Ann (Knoll International, 1984)			○							○	
	Sheraton (Knoll International, 1984)			○							○	
9. Nathalie du Pasquier	Royale (Memphis, 1983)					○					○	
	Fauteuil Pilar (1985)			○							○	
	Nathalie (Memphis, 1987)			○							○	
10. Borek Sipek	Ota Olaneck (1980)			○								○
	Anebotak (Neotu, 1983)			○							○	
	Prosim Sni (Draide, 1987)			○							○	
	Prorok (Draide, 1988)			○							○	
	Bambi chair (Vitra, 1988)			○							○	

4. 결론; 현대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상호연관성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미술과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각각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현대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상호연관성

	분석의 관점	주제(모티브)	형상(기법)	내용(메시지)
현대 미술	특성	차용적, 과거지향적	해체적, 비정형적, 다원적, 감성적, 직관적	원초적, 은유적, 추상적
	사례			

	분석의 관점	색채·마감	형태	내용(메시지)
가구 디자인	특성	과거 지향적, 복고적, 원시적	해체적, 상징적, 추상적, 혼성(hybrid)적	상업적, 은유적
	세부 내용	과거 양식의 모티브 차용, 비정형적 불규칙한 패턴 사용, 화려하고 거침없는 색채 사용	인간을 포함한 자연물의 형태, 기하학적 형태, 비정형적 형태, 대칭 비대칭의 조합, 상이한 형태 및 소재의 혼합 및 병치	사용자외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이슈의 표출, 작가·국가적 정체성, 상업적 메시지
가구 디자인	사례			
	사례			

즉, 신화, 전설 역사 등에서 작품의 주제를 취한 후 이를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 새로운 신화로 재창출해 내었던 현대미술의 특징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더니즘에서 거부하였던 장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함께, 가구의 표면이나 표면마감재의 패턴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과거 양식의 모티브 차용, 비정형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의 사용, 화려하고 거침없는 색채의 사용 등을 통한 과거 지향적, 복고적, 원시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 데코(Art Deco)나 아르 누보(Art Nouvea)의 장식과 패턴을 차용한 후 재해석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의자에 사용된 삼원색이나 보색의 대비는 형태에서 미처 표출되지 못한 강렬한 이미지

를 강조할 수 있었고 색채마감을 통해 의자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둘째, 꼴라주, 모자이크, 납화법, 프레스코 등 다양한 기법과 유리, 사진, 지푸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사용을 통한 해체적, 비정형적 현대미술의 특성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물의 형태, 기하학적 형태, 비정형적 형태, 대칭·비대칭의 조합, 상이한 형태 및 소재의 혼합 및 병치 등을 통한 해체적, 상징적, 추상적, 혼성(hybrid)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우주적인 사고, 이국적(동양적) 이미지 사용, 종교적,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원초적, 은유적, 추상적 특성을 표현하였던 현대미술의 특성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이슈의 표출, 작가·국가적 정체성,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업적, 은유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5. 논문의 요약 및 향후 과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현대미술과 가구디자인의 특성과 상호연관성을 1980년부터 10년간 발표된 작품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현대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주제, 형상,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세 가지로 도출하였으며 이들은 차용적, 과거 지향적인 주제, 해체적, 비정형적, 다원적, 감성적, 직관적인 형상, 원초적, 은유적, 추상적인 내용 등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 중에서 특히 의자디자인을 통해 살펴본 조형적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해체적, 상징적, 추상적 형태, 과거 지향적, 복고적, 원시적인 색채 및 마감, 상업적, 은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특성 등이었다. 미술에서의 주제 및 모티브는 가구에서의 색채 및 마감의 특성으로, 미술에서의 형상 및 기법은 가구에서의 형태적 특성으로, 미술에서의 내용은 가구에서 역시 내용으로 이어져 각각의 키워드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은 본 논문에서 언급된 디자이너들과 신진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대미술과의 상호연관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사례의 범위에 있어서 그 시점과 기간을 제한하여 살펴보았으며 추후 1990년대 이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1991
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C 의자디자인, 기문당, 2003
3. Carboni, Milco, The works of Ettore Sottsass and associates, Universe Publishing, 1999
4. Foye, Raymond & Percy, Ann, Francesco Clemente Three works, Rozzoli, 1990
5. Gilmour, John C., Fire of the earth; Anselm Keifer and the postmodern world,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6. Lucie-Smith, Edward, Furniture: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1979
7. Sayre, Henry M., A World of Art, second edition, Prentice-Hall, Inc., 1997
8. Sparke, Penny, A Century of Design, Mitchell Beazley, 1998
9. 리, 로렌시나 화란트, 100 Masterpieces from Vitra Design Museum Collection 한국어판, (주)로렌시나 제프리스, 2006
10. 추피, 스테파노, 천년의 그림여행, 예경, 2005
11. 테일러, 브랜든,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시각과 언어, 1996
12. 정영목, 독일 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 미술에 나타난 전통성과 시대정신,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4집, 1992

<접수 : 2007. 2. 28>